

문승호 이수현 선교사(MERSIN, TURKEY)

모바일

+90 533 385 5673(터키)

+82 10 2663 2391(한국)

카톡 아이디 : vicmoon

이메일

seungho.moon@gmail.com

프로필

문승호 이수현은 불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찾아 인생을 복음전도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일찌기 해외선교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대전)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1992년 남아공에 파송받아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말레이 무슬림전도, 선원전도, 흑인교회개척사역, 타아소사역 등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1995년 터키 이스탄불로 이주하여 무슬림 사회속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2003년 터키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이수현과 공평, 진평 아들 둘이 있다. 공평은 1993년 케이프타운에서, 진평은 1995년 고국방문중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공평은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중이며 진평은 2020년 군복무를 마치고 앙카라 소재 중동공과대학교 역사학과에 복학하여 졸업반이다.

사역

터키 무슬림 사역

M시에서 사역하는 동안 팀 사역의 필요성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최근 몇 년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멜신 팀을 구성하여 6 유닛이 동역하고 있다.

M교회사역 : 멜신은 터키의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다. 로마제국의 길리기아 지방으로 바울의 고향 다소가 바로 옆에 있다. 단일 항구로 터키 최대 물류량을 자랑하는 항구도시로 공식인구는 약 1백만 명이다. 인구의 많은 수가 쿠르드족으로 터키의 동부에서 온 이주자들이 정착하여 최근 30년 동안 급속하게 개발확장된 지방도시이다. 교회는 가정교회로 진행되며 주중에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목장모임을 가지며 월세로 임대한 아파트 거실에서 모두 함께 모여 주일연합예배로 드린다. 매주 대략 40여 명의 성인과 어린이가 모인다. 현재 예배당 건축을 위해 건축부지를 마련했으며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 2월에 현지인 지도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현재는 현지인 리더십 중심의 사역이 진행중이다.

이 자료는 보안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변지역 교회개척 : M 도는 인구가 170만명의 규모이며 시내 안에만 1백만명이 넘는다.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역팀을 구성하고 기도하며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는 6유닛의 팀을 구성했으며 두 유닛은 멜신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닛은 새로운 개척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에 우선적으로 1개의 교회 개척을 실행하기를 기도한다.

가정교회사역 : 2009년부터 M교회에 적용해 온 가정교회사역을 통하여 전도와 양육을 진행중이다. 목장사역을 통하여 교인들의 지인이나 가족 친척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진행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무슬림 사회에서 안전하며 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다. 목장사역은 문화적, 현실적 장애들로 인하여 시작부터 진행이 더디나 무슬림 사회의 열악한 영적환경에서 가정교회의 정신을 근간으로 초기부터 건전한 교회의 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개척을 시도하며 터키 내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도록 돕는다.

현지지도자 양육사역 : 멜신교회 현지인 지도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있다. 훈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한다. 먼저는 일상과 교회 안에서 영성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며 실제 목회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한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로서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현지의 각종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한다. 훈련된 현지 지도자들은 터키의 다양한 지역에서 교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고취시키며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훈련하고 양육한다.

바울 선교 센터 | 한국교회 선교지도력 개발 사역

M시의 바울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선교리더십 개발을 돕는 사역을 한다. 단기선교팀, 인턴선교사훈련, 선교전략개발사역, 선교사 영성관리와 회복을 위한 힐링센터 사역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단기팀 사역 : 한국과 미국 혹은 유럽에서 오는 단기 사역팀을 활성화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단기팀 사역을 개발하여 영어학교, 전도, 단기음악교실, 비전 트립 등의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단기선교팀을 통해 이슬람과 무슬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이들을 선교로 도전한다.

인턴선교사 훈련사역 : 청년선교(ymission.org)의 2+2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의 청년들을 1년간 인턴 선교사로 받아 훈련을 돕는다. 무슬림 사역현장 경험, 현지언어 습득과 문화적응훈련, 기본적인 선교신학훈련, 이슬람 연구 등의 인턴과정을 경험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지난 몇 년간 10명의 인턴 선교사가 멜신에서 1년씩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다. 모두 각자의 교회에 돌아가 성장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전보다 더 교회를 섬기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들중에는 인생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선교전략 연구개발 사역 : 그 동안의 사역경험으로 전략개발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는 격년마다 진행되는 국제다문화(이슬람)포럼을 섬기며 한국인 사역자들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필요한 전략을 위해 고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6권의 책자로 문서화 했다. 그리고 소속단체(FMB)의 이슬람권 사역자들의 모임인 인투네트워크의 대표 코디로 무슬림사역의 전략 연구개발 사역에 참여한다. 이 전략회의는 6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모든 발제를 매번 책자로 만들고 있다. 또한 소속단체의 전략개발연구원(SRDC)의 중동과 아프리카 담당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엘림하우스 힐링센터 : 멜신에 선교사 힐링센터로 엘림하우스를 마련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영적,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풀고 쉼과 재충전의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환경이 열악하여 쉽게 소진되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 멜신은 무슬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환경이 좋아서 선교사들이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에 적절한 곳이다. 2019년 말에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멜신에 엘림하우스를 마련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엘림하우스는 선교사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온 가족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전문적인 도움을 위해 상담 전문가들과 연결되어 있다.

사진



지중해변
에서의 침
례식

단기팀의
현지문화
체험



야외에서
주일 예배